

'무주산골영화제' 전체 상영작 확정

31개국 110편 작품 상영... 개막작 김태용 감독 총연출 '新 청춘의 십자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2022.6.2.~6.6.)가 올해 개막작 및 전체 상영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13년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청춘의 십자로> 매년 고전영화와 동시대 음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개막작을 소개하는 '무주산골영화제'가 10주년을 맞아 올해 개막작으로 김태용 감독이 총연출한 <新 청춘의 십자로>를 선보인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新 청춘의 십자로>

2013년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소개된 바 있는 <청춘의 십자로>는 영화상영과 공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김태용 감독의 연출 및 조희봉 배우의 변사 연기가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10주년을 기념하고 제1회 때의 벽한 감흥을 재현하고자 정확한 고증을 더해 <청춘의 십자로>를 재탄생, <新 청춘의 십자로>를 올해 개막작으로 소개한다.

▲총 110편의 상영작들을 만날 수 있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초여름,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의 5개의 실내 상영관과 3개의 야외상영장에서 열리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31개국, 110편 작품을 상영한다. 먼저,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한국전쟁전쟁부 '청' 섹션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형식과 개성 있는 스타일, 높은 완성도의 국내 수작 총 10편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시네아스트', '넥스트 액터', '키즈 스테이지' 섹션 등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힌 전세계 다양한 신작들을 소개하는 '판' 섹션에는 올해 총 69편이 소개된다. 여기에 고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등나무운동장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락' 섹션,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숲 속 극장 '덕유산극동원'에

서 만나는 심야 상영 프로그램 '숲' 섹션의 영화들이 관객들의 낭만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길' 섹션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여 무주군민을 위해 영화제 이후 약 한달간 무주의 산골 마을 12곳을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무주 산골 마을 극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10주년 기념 '앙코르' 영화 프로그램 주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무주산골영화제'는 매년 영화와 라이브 연주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고전영화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개막작 전통을 만들고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아왔다. 특별히 올해에는 10주년을 맞아 무주산골영화제의 역대 개막작과 무성영화 상영작 중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4편을 앙코르 상영, 그 때 그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앙코르! 개막작]으로 소개될 영화 2편은, 2018년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호녀심청>과 2019년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불가사리 합탈리부트>이며, [앙코르!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에는 선우정아와 열신혜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찰리 채플린의 <시터 라이트> 두 편이 선정되었다.

상영 당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현장 반응을 이끌어낸 작품들로, 공연 및 음악 연출이 더욱 풍성하게 구성되어 새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흥미로운 시간을 예고한다. 이외에도 2015년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숲' 상영작이었던 <비포 시리즈>(<비포 선라이즈> <비포 섀넌> <비포 미드나잇>)를 덕유산극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92회 춘향제' 성황리 막 내려

행사기간 11만명 관람투원 찾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3년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제92회 춘향제가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풍물장터가 열리지 못하고 관람투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제92회 춘향제에는 행사기간 11만명의 입장객이 관람투원을 찾았으며, 관람투원 일원에서 메인 무대인 춘향마당을 비롯해 발자마당, 월매마당, 향단마당, 소리청, 동룡마당 1, 2 등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춘향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춘향선발대회에서는 최성경(23세, 전북)씨가 진으로 선발되었으며, 7개의 무대가 관람투원 인근에 설치되어 관광객들은 낭비되는 동선없이 축제 현장을 자연스럽게 둘러봤고 이에 따라 관람투원 주변 모든 곳에 인파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람투원 주변 상가들도 코로나 19 이후 오랜만에 몰려든 관광객들로 성황을 맞았다. 관람투원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평소보다 강화되어 이번 춘향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번 춘향제에는 남원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돋보였다는 평으로,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공연이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중에도 공연장 주변의 무대에서는 국악예술고의 예비 예술인들을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 회원들이 실력을 보이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춘향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복의 물결로, 춘향제전위원회에서는 한복체험단을 중심으로 한복문화를 드러냈고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축제를 즐겼으며, 이번 춘향제가 이전의 춘향제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바로 연령대가 다른 춘향제보다 낮아졌고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현상이다.

관람투원 주변은 그 동안 남원시가 개발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남원예촌, 예투원, 조갑너머무관, 관서당 등의 건물이 완성되면서 관람투원과 조화를 이루었다.

양인환 관광과장은 "시에서는 구 시가지에 위치한 남원다움관을 비롯해 공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춘향제가 더욱 발전되고 다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에도 고품격 미술관 건립된다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 문체부 주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최종 통과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립 미술관 건립 사업'이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설립타당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다.

미술관 건립의 타당성 평가 등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최종심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되는데 고창군에서 2020년부터 준비해 3년여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그간 고창군 군립미술관은 2009년 종전 농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해 미등록 미술관으로 운

영됐었고, 최근 동리정사 재연사업과 함께 미술관 이전 신축사업이 추진됐다.

2025년도 새롭게 선보이게 될 고창군립미술관은 고창고인돌 박물관 맞은편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과 운곡습지, 고창군민들이 기증하는 기증 숲으로 조성 예정인 천년의 숲 등과 연계해 생태와 자연, 지역문화를 품은 고창형 생태미술관으로 건립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미술관 다룬 미술관 건립을 통해 고창의 생태와 지역주민들의 삶을 담아내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어린이날 연휴기간 관람객 증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1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고, 3월 개막 이후 현재까지의 관람객이 4만 여명에 이른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 관련 행사나 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감응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세계적인 이집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인 미국 브루클린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해 미래를 비롯한 실제 이집트 관련 유물 94점을 전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8월까지 '가인춘향' 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에서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 남원창극을 올리는 춘향가의 탄생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인춘향' 공연을 선보인다.

국악단이 출연하고 문화예술조합 삼진강이 주관하는 남원창극 '가인춘향'은 오는 5월 14일 개막해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화인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우천으로 인해 취소될 경우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

창극 가인춘향은 소리꾼 송선달이 남원고을 청향을 만나 판소리 춘향가를 작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극중극 형식으로 담았으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에 진부할 수 있는 스토리에 작창이라는 새로운 장치로 더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국악단은 임현빈(송선달 역), 채원영(청향 역), 조선하(춘향 역) 등 대령명상을 수상한 명창의 출연으로 판소리의 정석을 선보이며, 화려한 군무와 현장감 넘치는 국악 관현악 연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공연장은 관람투원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한복체험관 화인당과 복합문화공간 예투원 앞 야외공연장에서 펼쳐며, 해가 진 저녁시간



고즈넉한 한옥에 아름다운 조명까지 더해져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